

양계산업의 변화에 따른 양계경영의 중요성



김 영 철

(건국대 축산대학 축산경영학과 교수)

우 리나라 경제는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에 의한 IMF관리체제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그 동안 국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우리나라 국민1인당 GNP가 11,380달러나 되었던 것이 IMF관리체제인 1998년에는 6,742달러로 대폭 감소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후 다행히도 1999년에는 1인당 GNP가 8,581달러로 1994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금년에는 다시 1인당 GNP 1만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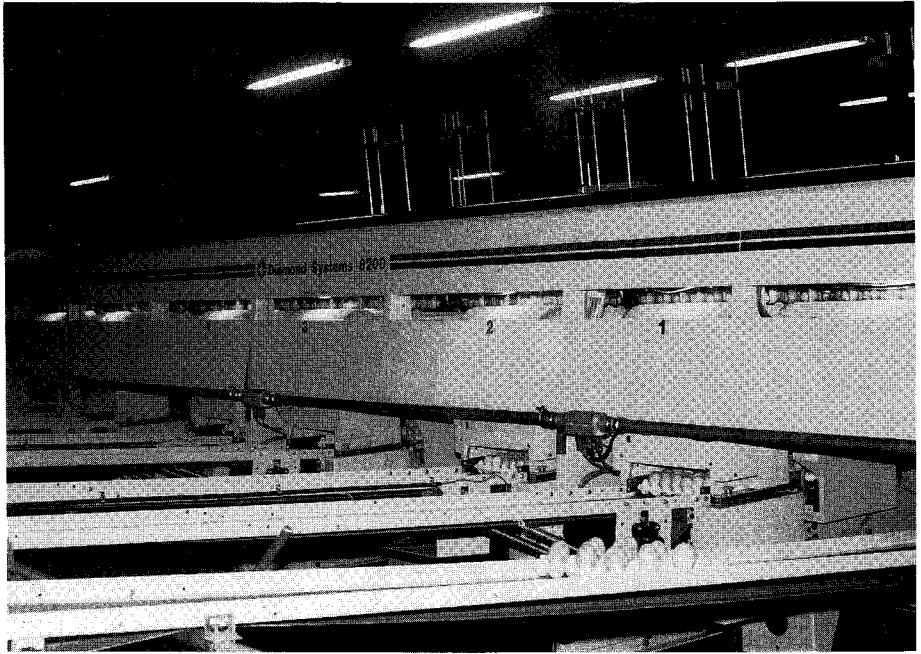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돌이켜 보면 1980년대 이후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의

하나가 바로 양계생산 과정에서 규모의 확대 현상이다. 즉, 간단하게 양계생산통계를 보면 1980년에 우리나라는 692천호의 양계농가가 총 4,013만수의 닭을 길르고 있었던 것이 2000년 9월 1일 현재 232천호의 양계농가가 총 9,580만수의 닭을 기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양계농가가 1/3로 줄어들었는데 반해 사육마리수는 2.4배나 증가하여 특히 양계농가당 사육마리수가 평균 450여수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 해 주고 있다.

한편 사육규모별 양계농가의 분포도 크게 변화하여 점차 대규모 양계농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에는 전체 양계농가의 98.7퍼센트인 683천호의 양계농가가 1,000수미만의 영세한 양계농가였고 10,000수 이상 대규모로 기업양계를 하는 농가는 전체의 0.02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 9월 1일 현재에는 10,000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양계농가가 전체양계농가의 11퍼센트인 2,730여 농가로 늘어났고 이들 농가들의 사육마리수가 무려 우리나라 총 사육마리 수의 89.4%를 차지하는 8,561만수를 생산하고 있어서 급속도로 대규모화와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닭고기나 계란 등 양계산물의 소비측면을

보더라도 지난 20여년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1980년에 2.4kg에 불과하였던 것이 그동안 IMF관리체제하에서 닭고기 소비량이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1999년에 6.0kg으로 그 동안 약



2.5배가 증가되었다. 한편 달걀 1인당 연간 소비량도 1980년에 119개였던 것이 1999년에는 180개로 증가하여 달걀소비량도 같은 기간동안 약 50%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양계산업도 급속도로 대규모화되면서 생산측면에서나 소비측면에서 다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장과정에서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음도 주지해야 할 사실로써 특히 양계산물의 생산 및 소비, 유통과정에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즉 생산과정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를 살펴보면 먼저 양계생산의 기본 문제인 종란 및 부화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지속적인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종란생산 및 부화체계를 보면 아직도 크게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수한 국산종계의 개발에 대한 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종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중의 하나인 종계의 개발기술 문제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그 산업의 발전은 바로 해당산업의 생산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술혁신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으로 원칙적으로 양계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우수한 품종의 국산 종계의 개발이나, 부화기술 개발 및 사양기술의 발전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양계농가가 급속도로 규

모화가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양계농가에서 경영의 효율성 문제가 없지 않으며 대부분의 양계농가가 양계산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호경기를 겨냥한 투기적이고 일시적인 양계농가의 부침이다. 물론 양계시장의 호황, 불황에 따라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양계산업의 호황기를 겨냥하여 생산을 맞추어 나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어느 기업가를 막론하고 필요한 경영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양계농가의 부침이 잦을 때 양계산업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이나 특히 투자증대 또는 자본축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가격 안정화 문제이다. 양계산업과 관련된 시장가격의 문제는 크게 나누어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사료,약품,노임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시장가격안정정책과 생산된 양계생산물인 계란이나 닭고기 등, 양계생산물의 시장가격안정책이다. 가장 이상적인 시장가격의 구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능한한 값이 싼 생산요소가 적어도 생산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양계생산물의 가격이다. 양계생산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입사료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농가에서 생산된 양계산물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을 때 양계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축산물가격시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가 개인의 힘으로 양계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계농가의 자발적인 상호 협동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

조합을 통하여 상당부분 시장교섭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계축산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5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성, 협동조합간 협력의 문제 및 협동조합의 민주적관리문제 등 협동조합 원칙상의 문제로 협동조합의 이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적인 가격이라 하면 양계생산물의 가격은 양계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으로 생산비를 보상하고도 평균이윤이 발생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농가의 협동조합을 통한 어떤 기준가격조절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운용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발전방향이다. 왜냐하면 기준가격 형성기능이 특히 생산자의 자주, 자조단체인 협동조합을 통하여 제대로의 기능이 활성화 될 때에 그만큼 시장가격의 심한 등락을 막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양계산업 분야에서 투기적 요소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닭고기나 계란에 대한 요리방법이 다양하게 발달되지 못하고 있어서 양계산물의 소비증대가 크게 촉진되고 있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외국에 비하여 닭고기나 계란의 소비수준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러가지로 식생활 습성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비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양계산물의 소비촉진 여하에 따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